

국정뉴스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발표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 '경제'와 '평화'

문재인 대통령이 1월 7일 2020년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는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배석한 가운데 30분간 진행됐다. 이날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경제'와 '평화'로 동일하게 17번씩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북핵문제 등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 강조

1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팰로앨토 포시즌 호텔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및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북핵문제 관련 3국간 협력 방안 및 역내·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3국 장관은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가는 외교적 노력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같이했으며, 관련 정보 공유를 포함, 3국간 소통과 협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한국자유총연맹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 (070)7122-8057

◆시·도지부 연락처

- 서울 (02) 849-7871
- 부산 (051) 808-7960
- 대구 (053) 621-9880
- 인천 (032) 868-0113
- 광주 (062) 672-5004
- 대전 (042) 242-7601
- 울산 (052) 276-4400
- 세종 (044) 865-4522
- 경기 (031) 235-6166
- 강원 (033) 254-6670
- 충북 (043) 253-7770
- 충남 (041) 881-6045
- 전북 (063) 252-1797
- 전남 (062) 654-2340
- 경북 (054) 973-6312
- 경남 (055) 282-2332
- 제주 (064) 751-0191

자유칼럼

국민이 안보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



전인범 |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전 육군특전사령관

올해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그리고 총선을 비롯한 여러 정치 일정 등으로 인해 매우 격동적인 한 해가 될 것 같다. 가장 큰 관심은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것인지 아니면 2년 전의 긴장 상태로 회귀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선불리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남북관계도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

해 노력해왔다. 이미 세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 간의 격식에 구애받지 않은 만남은 역사적인 일임이 분명하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 북한이 보여 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지 등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커다란 희망의 시작

남북관계 경색은 일상생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 잊지 말아야

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북한의 단거리 탄도탄 시험 발사와 서해에서의 수차례 포사격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확실한 한 건의 업적'을 추구하는 듯한 모습과 김정은의 '계산된 비핵화의 오관' 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너무 앞선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의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설령 또다시 '화염과 분노'와 같은 험한 말이 미국에서 나올 때 북한이 허언과 '벼랑 끝 전술' 같은 과시 행동을 잘못 구사하다가 자칫해 미국의 '코털'을 건드리는

남북관계 경색은 일상생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 잊지 말아야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의 안보는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긴밀한 상호작용을 요구했다. 트럼프 정부의 '지나친 경제적 국익 우선의 근시안'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주변국과의 공조도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개개인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내가 곧 민간 외교관이 라는 생각으로 친절하게 대해 '우리 편'

을 만들어야 한다.

꾸준한 인내심을 갖고 거듭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남북관계 경색은 곧 국민의 일상생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 국민의 입장에서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주어진 각자의 본분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데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양보가 없다는 사실이다. 국가 생존은 곧 국민 개개인의 안위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국내외 안보가 중요한 때일수록 우리는 임무 수행에 열중하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군장병들의 가장 큰 사기는 바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에서 나온다. 또한, 군인 가족을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